황포돛배 타고 '영산강 문학' 돌아본다

광주전남작가회의, 28일 '작가와 함께하는 영산강문학답사'
'타오르는 강' 문순태, 시 '영산포'의 나해철 작가 등 참여
영산포·무안 식영정·회산 연꽃방죽 방문…문인 해설·토크

영산강은 남도 사람들의 한과 희망이 투영된 강이다. 남도인들의 삶의 토대뿐 아니라 수많은 예술작품의 모티브가 됐다.

지금까지 많은 문인들은 영산강을 소재로 남도 특유의 웅숭깊은 문학을 형상화했다. 조선시대 백호, 송순, 김인후, 박순, 고경명에서부터 근현대의 박화성, 오유권, 문병란, 문순태, 나해철, 이수행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인들이 영산강을 모티브로 의미 있는 작품을 남겼다.

영산강의 인문학적 가치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작가들과 함께 떠나는 문학답사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전남문화관광재단 후원으로 '영산강문학답사'를 오는 28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남도 문학 벨트 구성 일환으로 '작가와 함께 하는 영산강문학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답사는 영산강을 대표하는 작품을 미리 읽고 해당 문인을 초빙해 함께 현장을 답사하는 방식이다.

소설 '타오르는 강'의 문순태, 시 '영산포'의 나해철 시인, 이수행 시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영산포에서는 영산강 돛배를 승선하고 시산문낭송과 해설 시간이 예정돼 있다.

독자를 비롯한 답사 참가자들이 해당 작품을 읽고 답사에 참여하면 된다. 답사 과정에서 해당 문인의 작품을 주제로 토크가 펼쳐진다.

답사 주요 코스는 담양 가사문학관에서부터 목포문학관까지다. 중간에 용아 박용철 생가, 백호문학관, 영산포, 몽탄 석정포나루, 무안 식영정, 회산 연꽃방죽, 김우진 초혼묘, 목포항 및 근대역사문화거리, 목포문학관 등을 거칠 예정이다.

점심은 나주 대표 음식 곰탕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답사를 마치고 작성한 우수 기행문 또는 여행기는 지역 신문에 게재할 방침이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행사 당일(21일) 오전 9시에 광주문예회관에서 출발한다. 답사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이메일(ddh21@hanmail.net)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문의 010-2790-9838.

한편 광주전남작가회의는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과 함께 최근 영상강권 문학포럼을 목포문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영산강권문학포럼은 남도 문학벨트 구성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남지역 순회문학포럼이다. 지난 8월 섬진강문학포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행사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도문학의 문학적 주체에 대한 고찰'(문순태 소설가), '영산강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과 전망'(김선태 시인)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연희문학촌의 콘텐츠 개발 사례'(안현미 시인), '최하림 시인 추모제 제안'(윤정현 시인)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됐다.

목포문학관(위)과 영산강 황포돛배(아래). 〈광주일보 자료 사진〉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전남의 문학권역을 섬진강권, 영산강권, 다도해권역으로 나누어 매달 한 곳씩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전남지역순회문학포럼은 남도문예르네상스의 핵심 담론을 제공하는 행사"라면서 "문학인은 물론 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각은 사물간의 대립과 통합…연작시 15편 담겨
장흥 출신 이한성 시인 13년만에 신작 펴내

"여섯 번째 시집(2005)을 내고 4년 동안 붓을 들지 않았다. 실은, 시단을 떠나 오래도록 쉴 작정이었지만, 서재에 날로 쌓여가는 수백 권의 증정본 시집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많은 시인들에게 꼭 빚 갚음을 하고 싶어서였다. 하나를 취하면 둘을 내주라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냥, 받아먹고 딴청을 피울 수만 없지 않은가."

장흥 출신 이한성 시인이 13년 만에 신작 시집 '전각'(고요아침)을 펴냈다.

시집에는 전통성의 율격에 자유로운 소재를 덧입힌 60여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일정한 형식을 가로지르며 횡단하는 자유로운 서사는 활달하면서도 흥미롭다.

눈에 띄는 점은 '전각'을 소재로 한 연작시들이 모두 15편 담겨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각은 사물 간의 대립과 통합을 의미한다.

"긁어서 부스럼 낸 그런 우(愚)를 범치 않기 위해/ 점 위에 점을 찍듯 몇 날을 세운 칼날/ 마음의 흐름에 따라 푸른 흔을 심는다.// 지우개에 새겨 넣던 익명의 새 한 마리/ 날개도 펴지 못한 채 떨어져 누워 버린…/ 접어둔 기억 하나가 날개를 펴고 있다."('전각(篆刻) 1' 중에서)

한편 이한성 시인은 조선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월간문학'으로 등단했다. 중앙시조대상, 가람시조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전남 시조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가을 적벽', '볏짚' '신을 끄는 보름달'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하랑가' 창단 기념 무대

판소리 앙상블 '하랑가'〈사진〉가 4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아이 발이 첫발이라' 공연을 연다.

586번째 목요열린국악한마당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여성 소리꾼 5명으로 이루어진 '하랑가'가 창단을 기념하는 무대를 펼친다.

'하랑가'는 '함께 높이 날다'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 '하랑'과 노래 가(歌)를 붙여 지은 이름이다.

이번 창단 무대는 남도잡가 화초사거리, 민요 사철가, 새타령, 씻김 등 전통국악의 대표곡들로 꾸며진다. 또 관객들이 민요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윤 익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도 국외여행이 일반화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번 추석 황금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외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상은 사뭇 다른 문화권을 접하는 상황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국외의 선진문화도시 방문은 주로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시작하며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기반과 소비현상을 체험하게 한다. 미술관 입구에 줄을 선 관람자들의 인원수에 놀라고 전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며 작품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진지함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그들에게 미술관 관람은 아주 자연스러우며 너무도 편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전혀 다른 상황의 가장 큰 원인에는 미술교육의 다름이 그이유로 존재한다.

어린이 미술교육의 중요성

우리의 미술교육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시작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서는 미술대학 지망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업을 받지 않는다. 유치원에서의 미술교육은 주로 체험형 실기교육으로 자유주제 혹은 공통주제를 선정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미술수업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되며 중학교과정에서는 그 빈도수와 중요성이 더욱 소멸된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문제점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 학생들은 그저 혼자 그리고 완성하는 체험적 즐거움만을 느낀다. 완성 이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보다 분석적인 시각으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소통의 즐거움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미술문화 선진국이라 부르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미술교육이 더욱 세분화 되어있고 보다 진보적이다. 그들의 교육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감상교육과 소통교육이 더욱 발전했다. '에꼴 마테흐넬'이라 불리는 유치원의 미술교육을 보면 우리와 너무도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그림이 완성되면 서로에게 보여주며 주제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이 예쁘거나 혹은 수준에 못 미처도 서로가 재미있게 깔깔대며 대화를 나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자신 있게 의견을 소통하는 것이다. 우선은 자신의 그림을 잘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며, 다른 친구의 그림을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프랑스 파리의 미술관에 가면 10명에서 20여명 내외의 인솔교사와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어린이들을 쉽게 만난다. 주로 오후시간을 이용해 미술관을 방문하는 이러한 감상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이다. 유명작가의 작품 앞에 옹기종기 모여 매우 진지하게 담당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면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작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제법 작품을 조형적 측면과 주제적 측면도 분석한다. 그들에게 그림은 재미있는 창작활동이며 마지못해 하는 숙제는 더욱 아니다. 담당교사들은 결과물로서의 그림보다도 과정으로서의 그림을 높게 평가 해주며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더욱 관심 있게 생각한다. 이러한 어린이 미술교육은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과 중, 고등과정으로 이어지며 그들에게 어느덧 미술공간은 그들의 일상과 너무도 가까운 곳으로 인식된다.

어린이는 주말이면 부모의 손을 잡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청소년이 되면 가까운 친구들과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연인의 손을 잡고 방문하는 곳이 미술관인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가까운 미술관을 방문하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